

□ 중동 특수, 접근 방법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

1. 최근 중동 경제 동향

-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중동 지역의 석유 수출액이 급증하여, 석유의 존도가 높은 중동 지역의 구매력이 크게 확충됨
- 국제 유가 급등 :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산 원유의 대표 유종인 Dubai유 가격이 WTI 및 Brent유에 비해 상승 폭이 더 커짐
 - 7월 7일 현재 Dubai 유가는 배럴당 54.2달러로 전년말의 33.1달러보다 약 63.7% 상승함
 - 한편 같은 기간 WTI(서부텍사스중질유) 최근 월물의 先物 가격은 배럴당 43.5달러에서 60.7달러로 39.5% 상승하였으며, Brent 先物 가격도 40.6달러에서 59.3달러로 46.1%상승함
- 원유 수출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대 산유국의 석유 수출액은 1999년 1,039억 달러에서 2003년 1,713억 달러로 4년 동안 약 65% 증가함
-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 원유 수출 확대로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는 1999년 171.0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470.3억 달러로 약 2.8배 급증함

< 중동 6대 산유국 경상수지 추이 >

(단위: 달러/배럴, 억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
두바이 유가 (연평균)	17.3	26.3	22.8	23.8	26.8
석유 수출액 (억 달러)	1,039.0	1,682.5	1,412.5	1,383.4	1,713.0
경상수지 (억 달러)	171.0	616.4	353.9	287.4	470.3

자료 :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3.

주 : 중동 6대 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임.

- 경제성장률 상승 : 원유 수출로 인한 경상수지 확대는 높은 석유 수출 의존도를 가진 중동 산유국들의 경제성장률을 상승시켜 구매력을 크게 확충시킴
 -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3국의 경제성장률은 2001년 1.9%에서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5.2% 및 4.4%로 급상승

< 국제 유가 및 중동 3대 산유국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석유공사, IMF.

주: 경제성장률은 중동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3국의 GDP 규모에 대한 가중 평균임.

< 참고 >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수출 의존도

- 중동 6대 산유국들의 2003년 총 수출액은 2,232.5억 달러이며, 이 중에서 석유 수출은 1,713.0억 달러로 76.7%를 차지함
- 특히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 비중이 총수출의 90%를 상회함

<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총수출 대비 석유 수출 비중(2003년 기준) >

(단위: 억 달러, %)

	석유 수출액 (A)	총수출액 (B)	비중 (A/B)
사우디	849.1	920.3	92.3
이 란	261.2	339.0	77.1
UAE	251.5	568.3	44.3
쿠웨이트	187.8	202.9	92.6
카타르	88.1	126.1	69.9
이라크	75.2	75.9	99.1
6개국 합계	1,713.0	2,232.5	76.7

자료 :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3.

2. 新 中東 特수의 現狀

○ (건설 수주 급증) 중동 국가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2004년 이후 중동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건설 수주액이 증가함

- 2005년 상반기 중동 지역에서 우리 건설사들의 수주 금액은 약 43.7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19.8억 달러에 비해 2.2배 증가함(계약 건수도 19건에서 32건으로 증가)

· 반면 같은 기간 非중동 지역에서의 수주액은 15.9억 달러에서 18.2억 달러로 불과 2.3억 달러 증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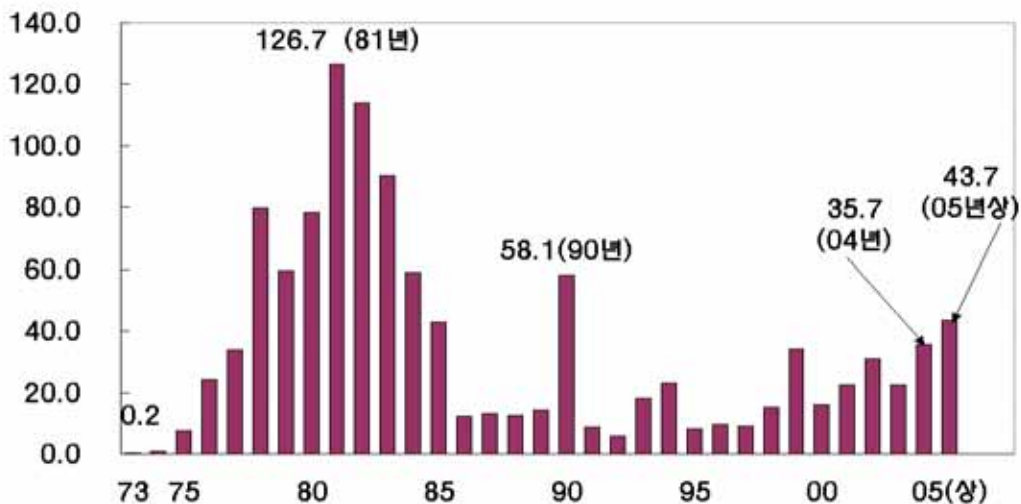
· 이에 따라 2005년 상반기 전체 해외 건설 수주액(61.9억 달러) 중 중동 지역 비중은 70.6%에 달함

- 한편 중동 지역에 대한 건설 수주가 올해 상반기에만 43.7억 달러이기 때문에, 예년의 상반기와 하반기의 수주 실적 차이를 고려할 경우 2005년 수주 실적은 80~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중동 특수 시기인 1977~85년 기간의 중동 지역 건설 수주액 평균인 76억 달러(역대 최대 수주액은 1981년의 126.7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해외건설 계약액 추이 >

(단위: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3. 新 中東 特수의 문제점

(1)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과급 효과 미흡

○ (수주액 실질 규모 미약) 오일 달러의 실질 가치 하락, 한국 경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최근 중동 건설수주액 수준 정도로는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오일 달러의 실질 가치 하락 : 2003년 현재 OPEC 바스켓 유가의 실질 가격은 2차 오일쇼크 때인 1981년의 약 4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참고 > 국제 유가의 명목 및 실질 가격의 괴리

-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3.) 에 의하면, 2003년 연평균 바스켓 유가의 명목 가격은 배럴당 28.10달러로 연평균 가격으로는 가장 높았던 1981년의 31.51달러에 근접해 있지만, 실질 가격은 1981년 15.55달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6.51 달러로 평가하고 있음

- 실질가격은 환율 변화(유로, 미 달러, 영 파운드, 스위스 프랑 등 OPEC의 상품 수입 국가들의 주요 통화에 대한 가중 평균치를 사용) 와, 물가 상승률(이들 국가의 소비자물가의 가중 평균)을 고려하여 추정함

- 한국 경제 규모의 빠른 증가 : 2005년 한국의 경제 규모는 1970년대 후반보다 1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동 지역에 대한 건설수주액은 최대 두 배 증가하는 데에 그침

· 명목 GDP 규모는 1976~1980년 평균 495.4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6,211.1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같은 기간 중동 지역에 대한 건설수주액은 55.2억 달러에서 약 80억~100억 달러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칠 전망이다

- 중동 건설 수주액의 대 GDP 비중 미약 : 중동 건설 수주액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동 붐이 한창이던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는 평균 1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1% 내외에 그쳤으며 올해의 경우에도 2%를 채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대 GDP 중동 지역 건설 수주 비중 추이 >

	76~80	81~85	86~90	91~00	01~04	2005(E)
중동 건설수주액 ^A (억 달러)	55.2	86.6	22.1	14.8	28.0	80.0
명목GDP ^B (억 달러)	495.4	843.8	1,866.4	4,317.5	5,792.5	6,221.1
비중 (A/B, %)	11.1	10.3	1.2	0.3	0.5	1.3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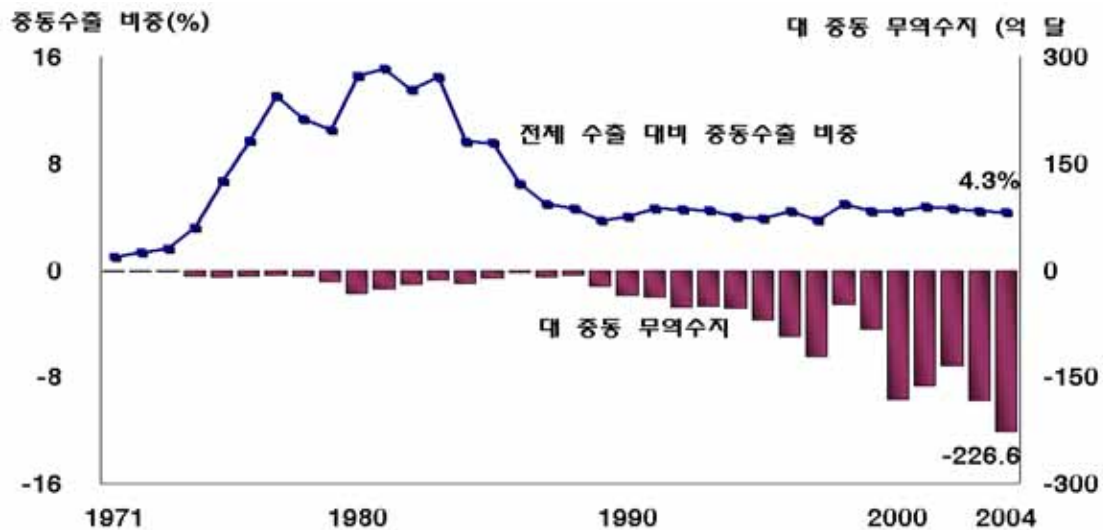
주: 1. 2005년 중동 건설수주액 예상치는 2004년 상하반기 수주액 증가율 차이를 이용

2. 명목 GDP는 2005년 경제성장률 4%, 물가상승률 3.4%, 평균 환율 1,020원을 가정.

○ (對 중동 무역수지는 큰 폭의 적자) 중동 특수이 이 지역에 대한 상품 수출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국내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장기여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對 중동 수출 비중은 1970, 80년대의 7~8%대에 미치지 못하는 5% 미만을 기록하고 있음
- 2005년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92.3억 달러 흑자를 나타낸 반면, 對 중동 지역 무역수지는 전체 흑자폭을 상쇄하고도 남는 143.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對 중동 수출 비중 및 무역수지추이 >



	1971~80	1981~90	1991~2000	2001~04
중동 수출 비중 (%)	7.3	8.6	4.4	4.5
對중동 무역수지 (억 달러)	-9.6	-16.8	-79.3	-176.6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표 안의 수치는 기간중 평균임.

- 특히 對 중동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건설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자재 수출 비중이 최근 29% 내외에 그쳐, 중동 붐이 한창이던 1990년의 57.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 중동 부문별 수출 추이 >

		90	95	00	04	05(1~5)
금액 (억 달러)	對중동 수출	26.2	48.8	75.9	110.1	48.2
	원자재	15.0	21.6	25.6	32.0	14.1
	자본재	3.9	10.4	25.2	36.3	15.7
	소비재	7.3	16.9	25.0	41.7	18.3
비중 (%)	원자재	57.2	44.2	33.8	29.0	29.3
	자본재	14.7	21.2	33.2	33.0	32.6
	소비재	27.9	34.6	33.0	37.9	38.1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인력 진출 부진) 과거 중동 특수 시기에는 이 지역에 대한 인력 수출이 동반되어 외화 획득과 근로자의 소득 증대 효과를 통해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성장 효과를 미쳤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고용에 대한 파급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 1980년 중동 지역으로의 출국자수는 약 13만 9,000명으로 전체 출국자수의 41.1%를 차지함
- 그러나 2004년 중동 지역 출국자는 7만 9,000명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이중에서 약 절반인 3만 7,000명이 관광 목적으로 중동을 방문함

< 내국인 출국자 추이 >

(단위: 만 명)

구 분	1980	1990	2000	2004
중동지역 출국자 수 (A)	13.9	0.9	3.1	7.9
총출국자 수 (B)	33.9	156.1	550.8	882.6
비 중 (A/B)	41.1%	0.5%	0.6%	0.9%

자료: 한국관광공사.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수익성 하락 우려

○ (건설 비용 상승) 오일 달러의 유입에 따르는 지역 물가 불안, 국가 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 확대에 의한 전자재 수요 급증 등으로 중동 지역 건설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진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

- UAE의 시멘트 가격(포대)은 2004년 12월 4.0달러에서 2005년 5월에 4.9달러로 22.5%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레미콘 가격(입방미터)은 40달러에서 57달러로 43%나 급증함
- 또한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인건비 상승 추세도 이어져 사우디 건설 현장의 근로자 일당은 20달러에서 35달러로 75% 증가함

< 중동 지역의 건설 비용 >

(단위 : 달러)

구 분	사우디			UAE			카타르		
	04.12	05.5	변동	04.12	05.5	변동%	04.12	05.5	변동%
시멘트 (bag)	3.3	3.9	18.0%	4.0	4.9	22.5%	3.7	3.8	2.7%
레미콘(입방미터)	40.0	57.0	43.0%	53.0	63.0	18.9%	93.0	121.0	30.1%
작업반장(일당)	20	35	75.0%	68	75	10.2%	55	70	27.3%

자료: M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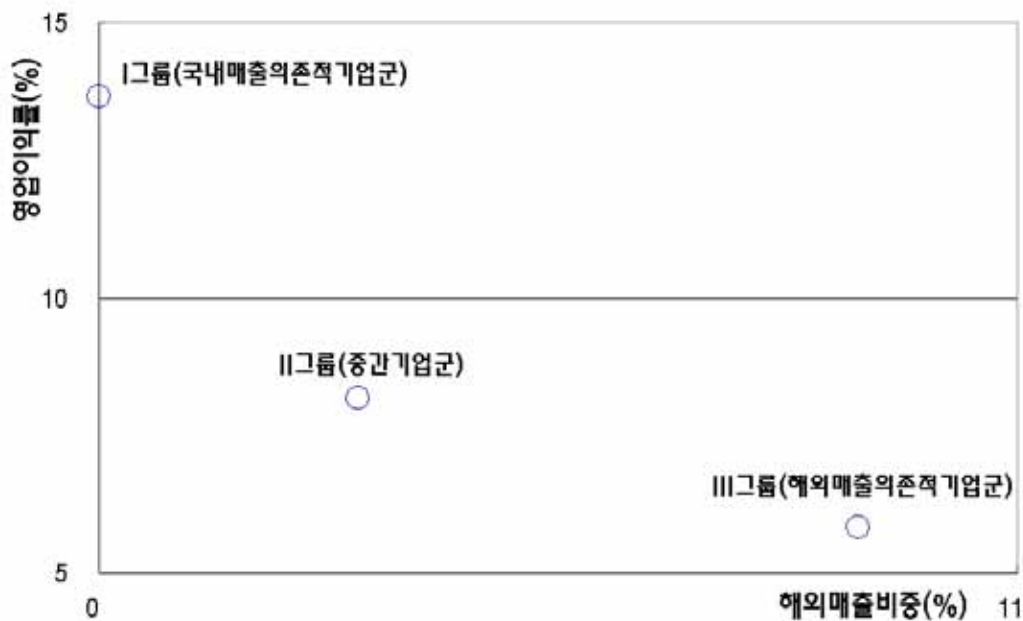
○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약화) 건설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계 건설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 증가가 건설사들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2004년 도급 순위 상위 7社の 재무 및 사업 구조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사업에 의존적인 건설사들(그림에서 III그룹)의 해외 매출 비중 평균은 9.1%이며 영업이익률은 5.8%에 불과함
 - 이는 해외 매출 비중이 전혀 없는 I 그룹과 중간기업군인 II 그룹의 영업이

익률인 13.7% 및 8.2%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합 건설 35개사의 영업이익률 7.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이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부가가치 창출력이 미약한 ‘시공’ 분야에 주력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이 분야에서 중국 등 신흥 개도국들의 시장 진입으로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세계 건설 시장에서의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3.0%에서 2001년 3.1%로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4.6%에서 5.6%로 1%p 증가함
 - 또한 중국의 중등 건설 시장 점유율은 2000년 4.8%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 9.5%로 크게 신장되어 우리나라의 10.0% 수준에 근접함 (*Engineering News Record, "the 225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

<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 및 해외매출 비중 (2004년) >



구 분	해외매출	총매출	영업이익	해외매출비중	영업이익률
	억 원			%	
I 그룹	0	25,948	3,544	0.0	13.7
II 그룹	1,204	37,470	3,135	3.1	8.2
III 그룹	3,578	38,653	2,351	9.1	5.8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 2004년 도급순위 상위 8대 업체중 상장기준 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회사 제외.

4. 시사점 및 개선 방안

- (시사점)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특수(特需)는 7,80년대의 상황과 비교할 때 실질 규모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성장기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진출 기업들의 경우에도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대응 방안) 선별 수주 및 전자재 리스크 관리
 - 국내 건설사들은 외형상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규모에 집착하지 말고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별 수주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임
 - 중동지역의 건설비용 상승에 대비하여, 상품 시장에서의 헤지 등을 통해 주요 전자재에 대한 가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정부의 정책 과제) 기술 발전을 통한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건설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
 - 2004년 현재 정부 전체 R&D 예산은 약 6조 원으로 총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 관련 R&D 예산은 약 750억 원으로 건설교통부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
 - 선진국 수준에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건설사들의 기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민간 R&D 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및 금융 지원이 필요
 - 한편 산업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인력의 질적 수준이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해서는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참고 > 국내 건설 산업의 기술 수준

- 국내 건설업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분야에서 7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우리 건설업체들의 주력 사업 부문인 시공 분야에서조차 72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국내 건설업의 분야별 기술 수준 (기술선진국=100) >

종합기술	기획	설계	입찰	시공	유지관리
67	63	66	68	72	66

자료: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교통부, 2002).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